

스마트한 관광 '군산시간여행 모바일권' 출시

시, 자유이용시설 외에 150여개 특별 할인 혜택

관광 상품 개발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군산시는 관광객들의 스마트한 관광을 유도하는 전북투어패스 '군산시간여행권 모바일권'을 전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간여행권 모바일권은 출시기념으로 500원 할인된 가격인 2,500원에 당초 5,000원~6,000원으로 이용 가능했던 군산 자유이용시설 5개소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철새조망대) 전체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둘러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여행에 특화된 군산시간여행권 모바일권은 자유이용시설 외에 150여개의 특별 할인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템과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내달 2일 정현율 익산시장 취임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중심의 익산 만들어 낼 것"

정현율 익산시장 취임식이 내달 2일 오후 2시,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시민화합 그리고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취임식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중심의 익산시를 만들어내겠다'는 정현율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상인, 다문화가정, 환경미화원, 장애인단체, 소외계층 등 약 1,200여 명의 각계각층 시민들과 함께 민선7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초청자가 아니더라도 취임식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취임식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민모두가 새로 출발하는 민선7기의 출발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현율 시장은 앞서 "의정과 형식은 검소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따

/익산=우병희기자

익산 남부시장 상인회, 내일 치맥축제

대표명물 개봉닭 특화·시장브랜드 조성 위해

익산 남부시장 상인회(회장 김두술)가 오는 29일부터 양일간 개봉닭을 대표적인 시장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치맥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익산 남부시장의 대표명물 개봉닭을 특화, 시장브랜드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치맥파티를 비롯해 복지TV 가요쇼 및 버스킹 공연, 풍바 공연 등을 개최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놀이터 및 체험행사 등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증명하는 파격적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민속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과 캘리그래피 등이 진행되며 4·4만세운동의 상징체 및 사진 촬영이벤트 또한 마련된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성껏 그린 남부시장 그림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재 남부시장에서는 치킨특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특화

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으며 남부시장 개봉닭에 새로운 맛과 옷을 입힌 컵치킨과 치킨도시락 등 특화상품 개발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두술 남부시장 상인회장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었으니 방문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치맥축제가 우리 남부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이를 통해 호남 최고의 치킨 특화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전북도가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별'에서 상반기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2천만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수신장률 등 6개 항목을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실시 등 지방세수 94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징수과에서 징수전담반을 구성, 고질·상습 차탈에 대하여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익산경찰서 및 고속도로공사 유관 기관 합동 단속, 관외 추적·봉인·견인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예완 징수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보건소, 치매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전형태)는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인 '헤이팅·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미술치료, 워예싱리, 음악치료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지원을 통해 치매가족을 보살피는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치매어르신을 섬



기기 위해 애쓰는 모든 가족과 이웃

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460-3211~2, 3283)하면 되고 오는 7월 2일(화)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해 신청순으로 15~20명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의회, 8대 의원 당선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군산시의회는 27일 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8대 시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상견례 겸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군경합동모집 참배를 시작으로 8대 시의회 당선인들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의회 일반현황과 의정활동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제8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상호간의 화합으로 군산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의정발전 모색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8대 군산시의회는 7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해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지역 배새 폭우로 담장 붕괴·농경지 침수

28일 밤과 27일 새벽 익산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담장 붕괴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삼성동 지역에는 12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영등동에 위치한 이리 남성여중·고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높이 1~2m 동원 콘크리트 담장 20m구간이 붕괴

됐다.

이 콘크리트 담장 울타리는 남성고·남성여고·남성중 정문에서 궁웨딩홀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붕괴시 차량들과 통행주민의 피해는 우려되고 있다.

또 망성면 무령리 고산마을 농경지 1ha와 내촌리 내촌마을 방울토마토 하우스 0.6ha, 동촌마을 도로 1개소가 침수되기도 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